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글로벌 조선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해운시장 운임이 상승세를 시현하고 선박가격 오름세도 뚜렷한 가운데 선박수주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조선업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 금년 1~8월 중 수주량은 전년동기대비 101.3% 늘어난 756만 5천CGT를 기록하며 전세계 선박수주 1위로 올라섰다.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교역량 확대, 경쟁우위 선종의 발주 증가 등에 힘입어 수주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동남권 조선업 생산도 내년에는 6년 만에 플러스 성장이 기대된다. 아직까지는 수주와 생산간 시차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점차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황 반등을 눈앞에 두고 좌초되지 않도록 한계상황에 직면한 지역내 기업들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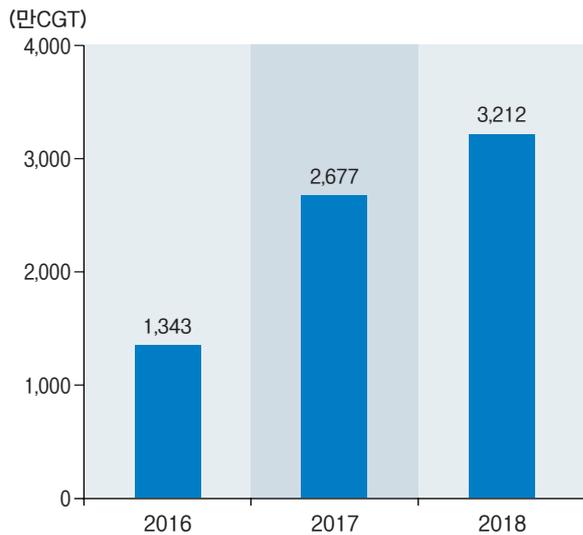
글로벌 조선업황, 개선 기대감 확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전세계 선박수주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조선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1~8월중 글로벌 조선업 수주량은 1,781만 4천 CGT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2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과 LNG선 수주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컨테이너선은 전년동기대비 264.0%(86만CGT → 313만CGT), LNG선은 243.4%(100만CGT → 343만CGT)의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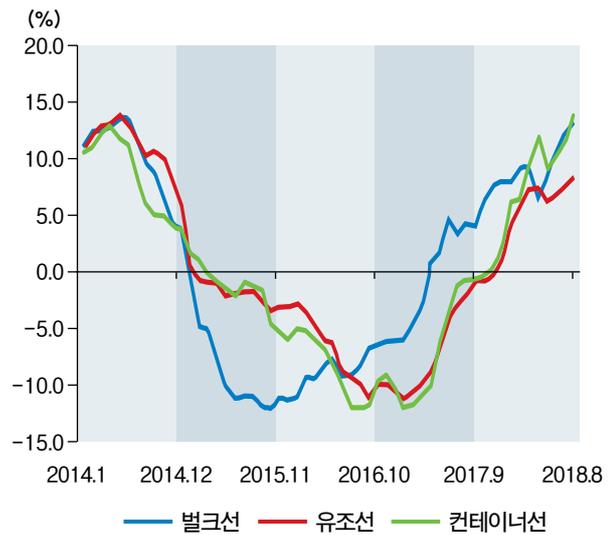
선박가격 오름세도 뚜렷하다. 신조선가격(New Building Price)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4.2%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 신조 가격이 9.8% 상승하였으며 벌크선과 유조선의 경우 각각 9.6%, 6.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선박 수주량



주 : 1) 2018년은 추정치
자료 : Clarkson

선종별 신조선가격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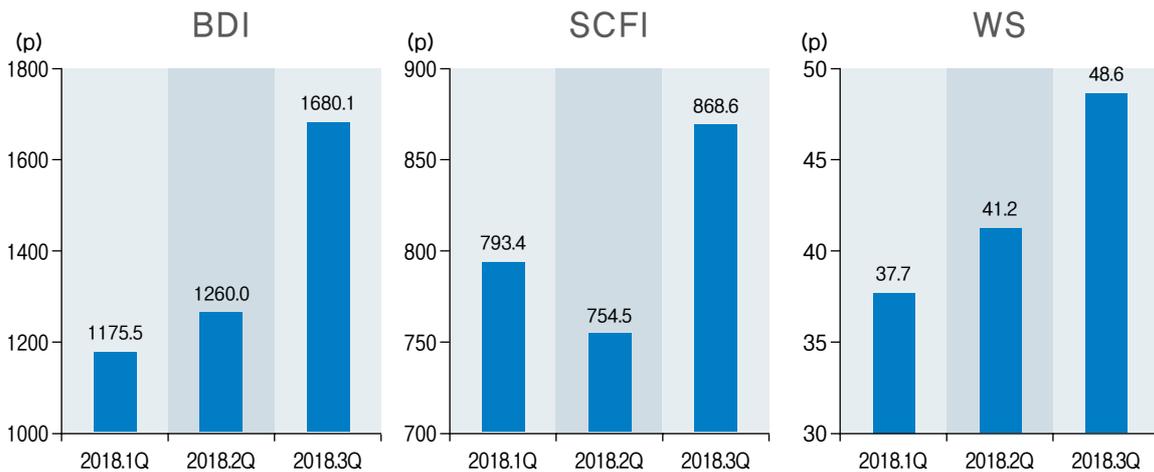
주 : 1)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 Clarkson

이와같은 조선업 수주 확대는 전방산업인 해운업이 회복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본격적인 환경규제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선박발주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해운시황을 대표하는 BDI의 경우 금년 1분기 평균 1175.5p에 그쳤으나 3분기에는 1680.1p까지 상승하였다. 2016년 2월초 역사적 저점인 290p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운임 수준이 6배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SCFI도 같은기간 793.4p에서 868.6p로 9.5%, WS도 37.7p에서 48.6p로 28.9% 상승하는 등 해운운임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시험하고 있다¹⁾.

이와함께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 및 황산화물(SOx)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선박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의무설치는 2019년 9월, 황산화물 규제는 202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해운운임 지수



주 : 1) 분기별 평균 운임지수
 2) 3분기는 7~8월 평균
 자료 : Clarkson

1) BDI(Baltic Dry Index)는 벌크선 운임지수, SCFI(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는 컨테이너 운임지수, WS(World Scale)는 유조선 운임지수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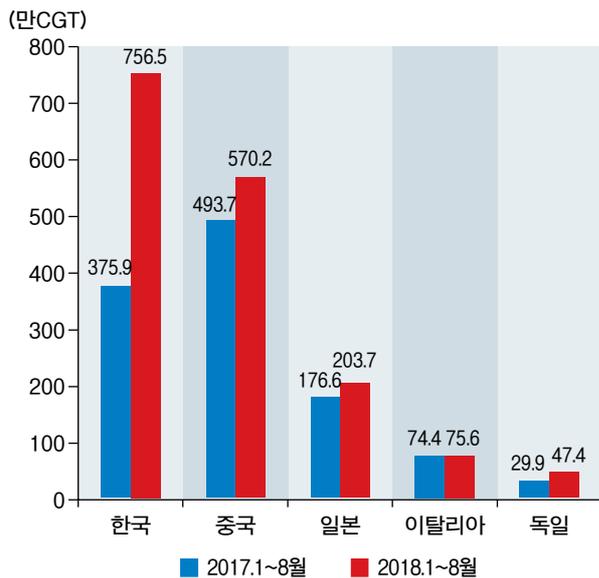
한국 조선업, 가장 빠른 수주 회복세

국내 조선업은 금년 1~8월중 756만 5천CGT를 수주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기간 375만 9천CGT와 비교하면 101.3% 증가한 것이다.

이와같은 실적호조는 기술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LNG선 및 대형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글로벌 선박발주가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 한편 중국(570만 2천 CGT)과 일본(203만 7천CGT)은 같은기간 약 15% 증가하며 한국의 수주 증가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조선업이 전세계 선박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7.3%에서 올해 1~8월중 42.5%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수주 1위 자리를 지켜왔던 중국은 올해 32.0%를 차지하는데 그치며 2위로 밀려났다. 일본의 경우 11.4%로 3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별 수주량 현황



주 : 1) 수주량 상위 5대국 기준
자료 : Clarkson

국가별 수주 점유율 변화



주 : 1) CGT 기준
자료 : Clarkson

최근의 수주확대는 주로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는 금년 1~8월중에만 724만 2천CGT를 수주하며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할 때 121.7%의 높은 수주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에따라 대형조선사가 국내 총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2017년 91.3% 수준이었으나 2018년 1~8월중에는 95.7%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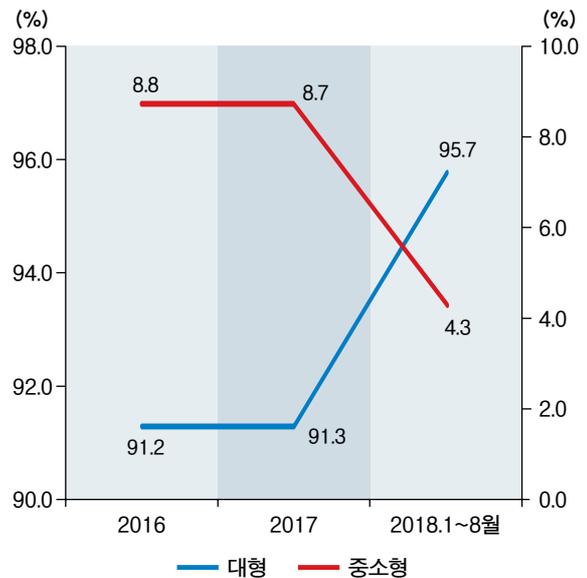
한편 중소형조선사의 경우 수주 부진이 이어지며 대형조선사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년중 10대 중소형조선사²⁾중 3개사(STX, 대선조선, 대한조선)만이 일감을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형조선사의 척수 기준 수주량은 지난해 1~8월중 28척에서 올해 같은기간 14척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조선사 규모별 수주량

구분	대형사 수주량	중소형사 수주량	전체 수주량
2016년	202.7	19.5	222.2
2017년	666.7	63.9	730.6
2017년 1~8월	326.6	49.3	375.9
2018년 1~8월	724.2	32.3	756.5

자료 : Clarkson

국내 조선사 규모별 수주비중



주 : CGT 기준
자료 :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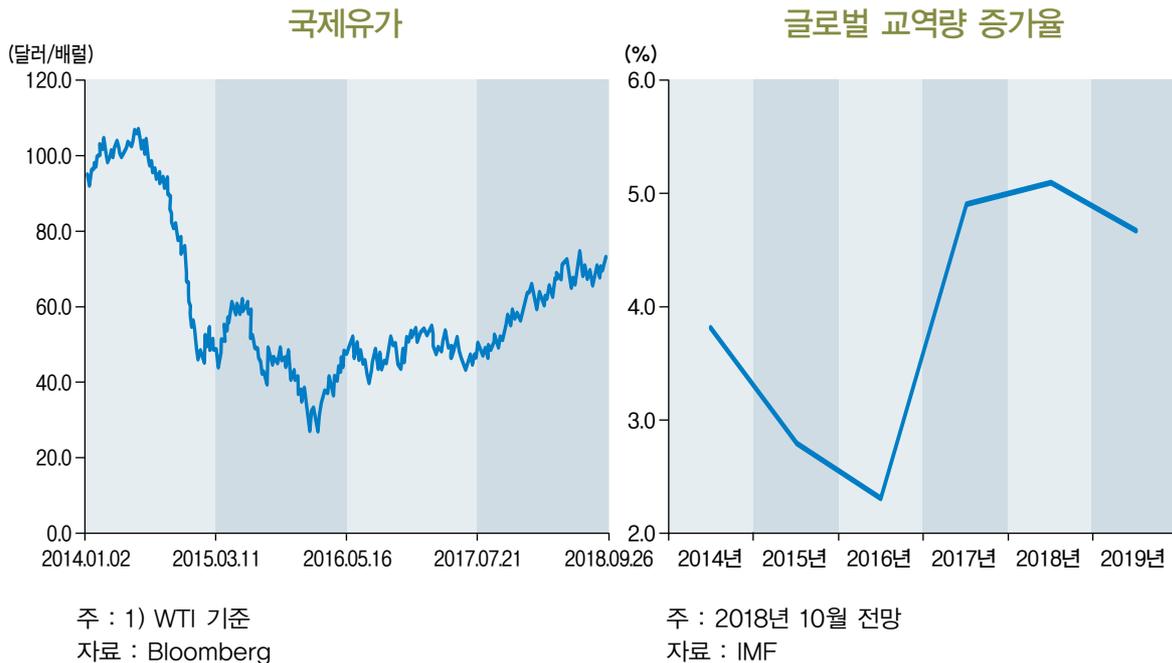
2) 업계에서는 성동, 대한, SPP, 대선, STX, 한진, 한국야나세, 연수, 마스텍중공업, 삼강 S&C 등 10개사를 중소형조선사로 분류

내년에도 수주 회복세 지속될 전망

내년에도 국내 조선업은 수주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유가 상승 및 글로벌 교역량 호조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LNG선 등의 발주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의 경우 선진국 중심의 견조한 세계수요 및 주요국 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금년 1~9월중 전년동기대비 35.3% 급등하며 2018년 9월말 현재 배럴당 73.3달러까지 상승하였다³⁾. 이란산 원유 제재 압박, 베네수엘라 공급차질 지속 등으로 내년에도 원유가격은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어 해양플랜트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⁴⁾.

글로벌 교역량 증가에 따른 해운시황 회복도 수주 확대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IMF는 세계경제가 선진국 경기개선에 힘입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3.7%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면서 교역량도 4~5% 수준의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 글로벌 주요 석유거래소들은 내년에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블룸버그)

4) 금년 10월 현대중공업이 2014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에 수주에 성공하는 등 유가 상승에 따른 해양플랜트 시장 회복 기대감 확대

덴마크 선박금융 전문업체인 Danish Ship Finance 역시 글로벌 수주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선종별로는 차별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먼저 LNG선과 벌크선의 수주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LNG선의 긍정적 전망은 중국의 환경오염 규제, 글로벌 탄소세 부과 강화 등에 따른 가스수요 확대에 기반하고 있다. 벌크선의 경우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따른 인프라 수요확대 등으로 발주 증가세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나 에너지 저장 분야에 배터리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리튬, 구리 등 금속수요 증가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컨테이너선은 글로벌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른 수주감소 우려도 제기된다. OECD는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G2간 무역분쟁의 여파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면 글로벌 교역량은 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9년 선종별 발주전망



자료 : Danish Ship Finance(2018.5)

2019년 동남권 조선업, 6년 만에 플러스 성장 기대 조선기자재업체 생존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

금년들어 조선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형조선사 위주의 수주 확대에 그치고 있어 아직 본격적인 생산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동남권 조선업 생산도 2017년에 큰 폭의 감소세(-26.3%)를 기록한 후 금년에도 부진(-22.4%)이 지속되고 있다. 수주와 생산간 시차로 인해 조선업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권 조선업 생산지수 증가율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8월
전체 제조업	-1.0	-1.3	-2.8	-3.1	-3.0	-4.6
조선업	0.5	-14.1	-11.1	-11.9	-26.3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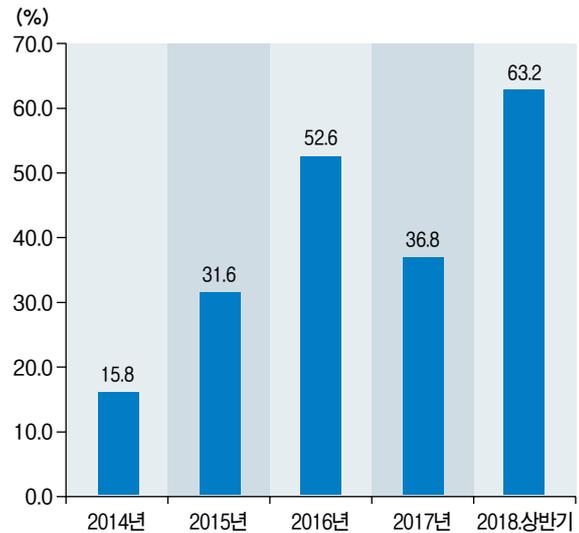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특히 동남권 조선기자재업체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상장기업 19개사의 평균 매출액은 2015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했으며 영업이익 역시 금년 상반기중 5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였다. 적자 기업수 비중도 2015년 15.8%에서 2018년 상반기에는 63.2%까지 높아졌다. 올해의 경우 상장기업 19개사중 12개사가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조선기자재업체 평균 매출액 및 영업이익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2014년	1,532 (2.5)	21 (-58.5)
2015년	1,411 (-7.9)	58 (182.9)
2016년	1,213 (-14.0)	43 (-25.1)
2017년	1,074 (-11.5)	22 (-50.1)
2018.상반기	481 (-9.0)	-12 (-166.9)

조선기자재업체 적자기업 비중



주 : 1) 동남권 상장기업 19개사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기업데이터

하지만 2017년 이후의 수주회복세를 감안할 때 동남권 조선업 생산이 금년에 저점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6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지역내 기업들이 업황 반등을 눈앞에 두고 좌초되지 않도록 생존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급선무일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조선업이 그동안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것은 대형조선사가 높은 경쟁력을 갖춘 측면도 있었지만 국내 조선기자재업체들의 기술개발과 안정적인 공급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단기간에 구축할 수 없는 조선기자재업체들의 기술력, 전문인력 등 핵심역량을 지켜나가며 본격적인 업황 반등시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조선업 활력제고 방안'을 11월중 발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많은 조선기자재업체들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신속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특히 조선업 생산 회복은 기계, 철강, 화학 등 주요 후방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동남권 경기활력 회복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참고] IMO* 주요 환경규제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국제해사기구)

▣ 황산화물(SOx) 배출규제

- **발효시기** : 2020년 1월 1일
- **주요내용** : 선박연료에 포함된 황함유량 저감
 - 전세계 모든 해역에서 연료유의 황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로 제한하는 것을 규정
 - 신조 발주선 및 기존의 모든 선박이 적용대상
- **대응방법** : 선주 입장에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유효
 - 선박 연료유를 기존 벙커C유에서 선박용 경유(MGO, Maritime Gas Oil) 등 저유황유로 교체
 - * MGO는 기존 연료에 비해 40% 이상 비싸다는 단점
 - 황산화물 저감장치인 스크러버(Scrubber)를 선박에 설치
 - * 비용 부담이 있으며 화물 적재공간이 줄어들며 연비도 떨어진다는 단점
 - 친환경 선박(LNG연료 사용) 신규발주

▣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시행

- **발효시기** : 2019년 9월 8일
 - 2019~2024년중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모든 국제 항해선박은 정기검사일에 수리도크에 입고하여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설치해야 함
- **협약채택일** : 2004년 2월 13일
- **주요내용** :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 설치
 - 선박평형수처리장치(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는 선박평형수내 미생물 등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살균기능을 가진 장치
 - 신조 발주선 및 기존의 모든 선박이 적용대상

[참고문헌]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www.bmea.or.kr

한국기업데이터, www.cretop.com

한국수출입은행, “중형조선사 2018년도 상반기 및 2분기 동향,” 2018.7

_____, “해운조선산업 2018년도 상반기 동향 및 하반기 전망,” 2018.7

Clarksons, www.clarksons.com

Danish Ship Finance, “Shipping Market Review,” 2018.5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8.10

BNK경제인사이드 발간목록

2014

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변화와 시사점
06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과 전망
07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동남권 조선업의 과제
08	동남권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환율 동향과 전망
10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2015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특징과 지역기업에 대한 시사점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5

01	G2경제 항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2	최근 국제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03	동남권의 중남미 교류 현황과 과제
04	지역경제 혁신의 동력 - 사물인터넷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06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현황
07	최근 기업금융 현황
08	중국경제 전망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9	동남권지역 주택시장 현황
10	동남권 창업생태계와 발전과제
11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경쟁력 우수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특징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06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0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08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09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10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11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2016

01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02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03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04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05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06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힘든 길도 꽃길이 되도록
BNK금융그룹이
함께합니다

금융의 규모가 커질수록 웃는 이는 더 많아져야합니다
 금융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나눔은 더 깊어져야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 손길이 필요한 곳, 언제, 어디든
 BNK금융그룹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BNK두루누리 사회복지 공모사업〉

BNK금융그룹은 BNK두루누리 사회복지 공모사업을 통해 직장맘 영유아
 간병 서비스,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장애 청소년과 함께하는 벽화 그리기,
 전통한채이 안전 삼각등 제작, 장애인 자립주기 도움사업 등 5개 아이디어를 선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BNK 금융그룹

BNK BNK금융지주

제2018-10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18년 10월 31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